



고산지대 길가에 모셔진 불탑과 풍차.



다량은 네팔을 네팔답게 인식시켜 준다.



길을 걷다 돌아보면 히말라야 설산이 장엄하다.

한걸음 한걸음 새로운 풍경에 감탄사 연발

18면에서 계속

#잘 먹어야 잘 걷는다

11월 9일, 트레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먹는 것이다. 어디서나 제일 중요한 것이 먹는 문제였지만 특히 트레킹에서 음식이 부실하면 피로도 빨리 느끼고 고소증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설부터 현지식에 도전하기보다는 전문 식사준비 팀을 대동하는 것이 좋다.

우리 식사준비 팀의 대장은 까르마 텐지, 30대 중반의 그는 한국어를 한국 사람만큼 잘 한다. 서울의 한식 요리학원에서 6개월을 공부했고 요리사 자격증도 있다. 경기도 어디 공장에서 일한 경험도 있어 그냥 한국사람 대하듯 편하게 대할 수 있다. 그가 이끄는 6명의 키친보이들은 한국음식에 익숙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솜씨를 발휘해 식사 때마다 일행을 감동시켰다. 미역국 황태국 등을 적절히 준비했고 찌개종류도 그럴듯하게 끓였다. 현지의 상식한 야채들을 구입해 곁절이를 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매 끼니마다 승승을 준비하는 센스까지.

시발라야는 치즈가 유명한 곳이다. 해발 30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자라는 나크(아크는 수컷이 암컷을 나크라 함)의 젖을 이용해 만드는 이곳의 치즈는 유럽에서도 알아준다고 한다.

두 번째 날도 아침 7시 전에 운동과 식사와 짐 챙기기가 끝났다. 커다란 산 사이의 강을 끼고 형성된 마을 시발라야를 뒤로 하고 곧바로 가파른 산길을 올랐다. 전날 비교적 많이 쉬긴 했지만 모든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다. 산도 다르고 마을도 다르고 거기 사는 사람도 다르지만 길은 매일 그 길이 그 길 같다.

하지만 길은 한 번도 같지 않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갈 때마다 새로운 풍경을 열어주고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두 발로 길을 걷는다는 것의 행복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다. 머리를 감지 않아도 휴대폰이 없어도 하루가 즐겁다는 것을 온 몸으로 받아들이는 시점이다.

오전 내내 걸어도 산 정상에 다다르지 못했다. 기운은 어제처럼 26도 내외정도. 중간에서 점심을 먹고 두어 시간을 더 오른 고갯마루에 뿔뿔로 형성된 타운이 있었다. 이름은 대우탈리. 해발 2700m다. 마을 가운데 두 줄로 길게 만들어진 마니탑이 있

다. 마니탑은 돌로 쌓은 단위에 '옴마니반케홀'을 새긴 편편한 돌판을 모셔둔 것이다. 그 옆에는 긴 장대에 경전을 새긴 깃발을 매단 초르텐과 역시 경전을 새긴 깃발을 줄에 달아 팔력하게 하는 툽따가 장엄되어 있다. 바람이 많은 고갯마루여서 바람을 타고 부처님의 진리를 보다 먼 곳으로 날려 보내려는 고운 심성들이 그렇게 치성을 드리며 세월을 이어 온 것이라. 마니탑과 초르텐 뒤편은 마을마다 집집마다 거의 다 갖추고 있다. 어쩌면 그 종교적 상징물이 히말라야의 가슴에 팔력하는 이름표일지도 모르겠다.

종교란 참으로 소박한데서 시작되는 것이다. 지나치게 거창하고 지나치게 복잡하고 지나치게 형식을 갖추면 이미 종교의 본질과 멀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적어도 마니탑과 초르텐을 지나치는 순간만은 아무런 장식도 없이 그저 마음속에서 '옴마니반케홀' 여섯 글자의 진언만 아로새기고 싶어지는 것이다.

대우탈리를 넘어 아래로 꽃하듯 내리막길로 두어 시간. 마치 동화속의 마을 같이 아름다운 마을이 기다리고 있었다. 반달이라는 마을의 중간에는 아담한 절도 있었다. 멀리 우리의 목적이인 피케이 봉이 보이는 이 마을은 비교적 넓은 구릉을 안고 있다. 빗꽃이 드문드문 피어있고 차나무가 울창할망 자라고 있다. 초지에서 소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다가 먼 산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노래가 흘러나오는 그런 동네다. 해발 2250m에 이런 마을이 있구나 역시 히말라야다.

우리가 목을 뚫기가 바로 절 옆에서 더욱 좋았다. 절은 50대의 노스님과 20대의 젊은 라마가 지키고 있었다. 법당 앞에는 커다란 스투파가 양쪽에 서 있었는데 젊은 라마는 "왼쪽의 둥근 모양은 여성을 오른쪽의 사각형은 남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티베트의 성인이 절을 지어 카트만두의 큰 사원에게 기증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며칠째 세수도

제대로 하지 않은 불꽃이지만 부처님께 합장하고 삼귀의 반야심경 사후서원으로 간략하나마 예불을 올리고 하루를 마감하니 마음이 출가분했다.

#동바, 창 그리고 렉시

11월 10일, 또 하나의 산을 넘고 산등허리를 휘둘러 하루를 마쳤다. 해발 2050m의 마일리라는 동네는 지금까지 지나온 동네들 가운데 가장 척박하다.



불블레 가는 길 3200m지점의 마니탑.

강가나 평지에 형성된 마을이 아니고 가파른 산비탈에 붙은 산골마을이다. 마당에 텐트를 치고 자야 했다. 집으로 이어지는 전기선은 보이는데 어떤 일인지 전기는 들어오지 않고 램프 빛에 의존해 밥을 먹어야 했다.

두엄 냄새가 풀풀 풍기는 마당에서의 하룻밤. 그래도 별은 얼마나 많은지 하늘이 우수수 쏟아져 내릴 것만 같았다. 산골마을이라 밤도 일찍 찾아왔다. 저녁을 먹고 나니 어느새 어두웠고 밤이 장장했다. 경주에서 온 각해거사와 광주에서 동침한 초암거사가 한참동안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인연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다. 이 두 분은 이번 트레킹에서 처음 만나 함께 밥을 쓰게 됐다. 사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지리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 두 사람이 같은 해 같은 날 태어난 동갑임을 확인했다. 지역 만리에서 그렇게 만나는 인연도 있는 것이다. 잠자리에 들기에 뭔가 허전하다. 오늘부터 금주령

이 떨어진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3000m 이상을 오르게 되므로 술과 양치질과 세수를 금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는 당부도 있었다. 히말라야는 아무에게나 그 장엄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지리에서부터는 밤마다 조금씩 반주를 했다. 꼬도를 발효시켜서 만든 툽바나 썬도 빛은 막걸리인 창, 그리고 꼬도를 증류한 소주인 렉시 등은 화학재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네팔의 순수민간 조제주다. 이 술들은 하나같이 뒤끝이 좋다. 툽바의 경우 입산부도 마신다니 술이 아니라 약인 셈이다. 일행을 리드하는 영봉 스님은 "오직 정상에 무사히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을 잃지 말라"고 했지만 '맨 입'에 잡을 청하러니 마음 한구석씩 허전한 것은 사실이었다.

#언뜻 보이는 설산의 신령스러움

11월 11일, "밥 많이 드십시오. 오늘 굉장히 가파르게 치고 올라갑니다." 오늘은 힘든 코스라는데 일행들은 별 반응도 없다. 힘들어 봤던 걸 걷는 거지 뭐 설수 있어? 이런 반응이다. 사람은 참으로 환경에 잘 적응하고 어느 정도 적응되면 배짱도 생기나보다.

과연 가파른 길이었지만, 돌부리를 차면서 오르다 가도 한 숨 돌리려고 서면 이내 감탄사가 쏟아진다. 허엿없는 다량논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다. 올라갈수록 먼 곳의 산들이 손에 잡힐 듯 다가오고 햇살이 비치는 산과 그늘진 산의 명암이 마치 한 장의 사진처럼 보이기도 한다.

3시간가량 꾸준히 올라간 곳부터는 원시림이다. 네팔의 국화인 라리구라스 꽃나무들이 밀림을 형성하고 있다. 아드르미 전나무와 비자나무들도 숲의 주인으로 서 있고 우기 때의 무성함을 증명하듯 이끼들의 형태도 나무마다 이불처럼 덮여 있다. 꽃이 필 때 이 밀림을 통과하면 은총 꽃향기에 취해 정신이 몽롱할 지경이라는 가이드의 설명에 나름대로 상



반달에서 마일리로 가는 쇠줄다리.

상의 나래를 펼쳐본다. "그러니까 라리구라스 꽃이 피면 이 길은 그야말로 난리부르스가 된다 이거죠?"

"..." 가이드가 '난리부르스'라는 속어를 알아들을 리 없지. 아무튼 그러한 꽃 터널은 이 트레킹 코스에서 4일이나 이어지게 된다니 불철의 트레킹이 더 멋진 것 같다.

오전을 꼬박 걸어 어느새 해발 3200m에 이르는 고지로 접어들었다.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피케이 봉이 저만치 다가와 있다. 민둥산이다. 밀림과의 경계가 확연하다. 바람이 거세다. 일행은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멀리 조망되는 히말라야의 풍경을 넋을 놓았다. 긴 마니탑을 지나며 발아래에서 뭉글거리는 구름 아래는 어떤 마을이 있을까 생각했다.

물이 치솟아 오른다는 불블레. 해발 3200m의 추운 마을, 엉성한 뿔뿔 마당에 텐트를 치고 원형대는 바람소리를 이불삼아 잠을 청하면서 가슴은 설렌다. 이제 내일이면 베이스 캠프에 가고 그 다음날이면 피케이 봉 정상에 오를 것이므로 과연 히말라야는 우리에게 그 장엄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계속>

네팔=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난방기구 전문업체 대동 해모로 2010년형 출시!

온풍+강력난방 전기난로 88,000원

국내 생산제품

난로, 히터, 온풍기의 장점만 살린 전기난로의 결정판 - 연료식 난로의 강력한 화력 + 전기히터의 청결함 + 온풍기의 대류방식을 모두 적용한 웰빙 전기히터!!

올 겨울 추위걱정 싹~ 후끈 후끈 합니다. 초강력 난방능력으로 전기로 절약!!

난방비 90% 절감!
1일 8시간 사용시 3kw기준 1,612원 (누진세 미적용)

3대 만족

- 강력한 화력!
- 저렴한 가격!
- 유지비 절감 동시만족!

온풍 대류기능

- 360도 전방향 입체 난방
- 공해없는 청정난방 (무취, 무연, 무소음, 무독)
- 다양한 온도조절로 경제적
- 동급최고의 난방능력
- 초절전 설계의 경제난방
- 첨단 안전장치로 안전난방 (넘어지면 자동으로 꺼짐)
- 복고풍 디자인의 정겨움
- 물을 올려 두면 가슴기로 무게가 가벼워 이동이 편리
- 국내산으로 무상1년 A/S보장

해모로 온풍형 히터 / 3000

- 모델명 : DD-3000
- 정격소비전력 : 220W / 2900W
- 규격 : 270 x 340 x 630mm
- 무게 : 4.1kg • 난방면적 : 49.5㎡

▶ 현금할인가 : 98,000원

일반형 (온풍기능없음)

원통형 히터 / 2000

- 모델명 : 7200/2000 • 난방면적 : 16.5㎡
- 정격소비전력 : 220W / 1800W
- 규격 : 320 x 320 x 550mm • 무게 : 3kg

▶ 현금할인가 : 78,000원

원통형 히터 / 3000

- 모델명 : 7000/3000 • 난방면적 : 33㎡
- 정격소비전력 : 220W / 2900W
- 규격 : 320 x 320 x 610mm • 무게 : 3.5kg

▶ 현금할인가 : 88,000원

가정용 근적외선 웰빙히터 TS-950HS

23.1㎡ (7평형)

난방고도 27" 좌·우 회전 90° 상·하 불이조절

수직으로 회전기능

- 정격전압 : AC 220V/60Hz
- 정격소비전력 : 950W, 약 475W
- 제품규격 : - Head : 470 x 210 x 180(mm) - Base : 230mm(원형)
- 높이 : 최상-1000mm (250mm 높낮이 조절)
- 제품중량 : 약 4.6kg
- 난방면적 : 23.1㎡ (7평형)
- 타이어 부착
- 인도안전장제 부착
- 본인 안전제어
- 안전난방 (넘어지면 자동으로 꺼짐)
- 화재방지 (열선)
- 제조원 (주)해모로

▶ 현금할인가 : 135,000원

전국 어디서나

주문전화 080-223-7000

신용카드 구입 가능 * 전화로 주문하시면 택배로 배송드립니다.

품질과 A/S를 확실히 보증합니다.
무상A/S 1년

제조원 **대동해모로**

입금계좌 (예금주 : 양유정)
농협 302-0127-6837-61
(해모로 2,500원 소외부담)

전국 대리점 및
취점점 모집중